

SEOUL ECONOMIC MONITORING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1. Oct

10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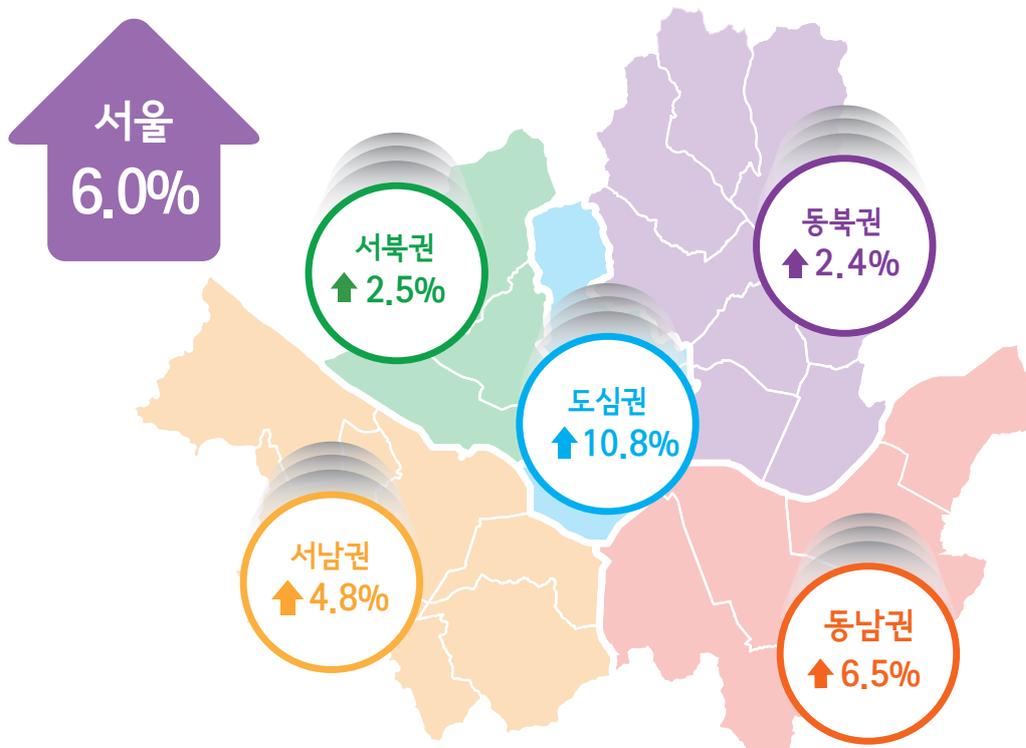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1. 10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21년 10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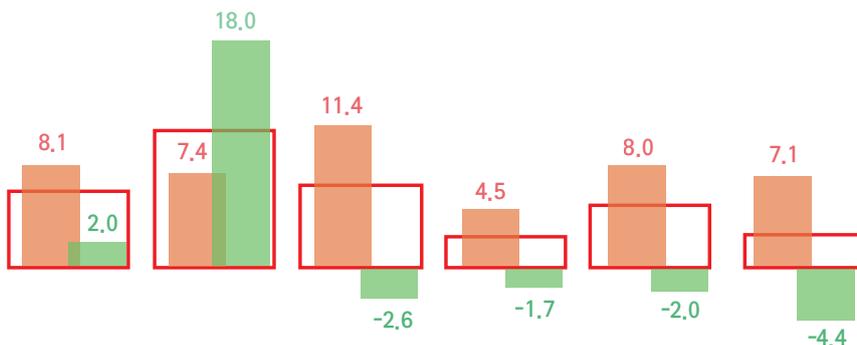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6.0%** 상승
(불변지수)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 유지
오름폭은 다소 둔화



전년동월비 (불변지수기준)

서울 6.0% 도심권 10.8% 동남권 6.5% 동북권 2.4% 서남권 4.8% 서북권 2.5%



- 서울소비경기지수 전년동월비(%)
- 소매업지수 전년동월비(%)
- 숙박·음식점업지수 전년동월비(%)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조정·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음

요약

<p>서울 6.0% (10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0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109.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상승하면서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월 상승세를 이어감. 10월 소매업 오름폭은 다소 확대된 반면, 숙박·음식점업 오름폭이 (전월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서울 소비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9월, 8.4%)보다 다소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가정용품, 종합소매 등 전월 하락했던 일부 업종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10월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단, 연료와 가전제품·정보통신 업종의 부진은 지속) -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은 숙박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상승했던 주점·커피전문점과 음식점 등이 다시 하락으로 내려가면서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 오름폭이 (전월보다) 큰 폭(-13.6% p)으로 둔화
<p>권역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대부분 권역에서 무점포소매와 종합소매를 중심으로 소매업 오름폭은 확장한 반면, 전월 상승을 나타냈던 숙박·음식점업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10월 권역별 소비경기지수 오름폭도 (전월보다) 다소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권 :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거의 모두가 (전년동월대비) 상승을 나타내면서, 10월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도심권 소비경기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 소매업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 갔으나 숙박·음식점업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전월보다) 다소 둔화
<p>도심권 10.8% (11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이 7.4% 상승에다 숙박·음식점업도 18.0% 상승하면서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10.8% 상승. 도심권은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10월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가 상승 •도심권은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음식료품, 종합소매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매업은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 •도심권은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모두 상승하면서 10월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 상승
<p>동남권 6.5% (10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11.4% 상승 및 숙박·음식점업이 2.6% 소폭 하락하면서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는 6.5% 상승 •동남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종합소매, 의복·섬유·신발 등 세부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매출이 증가. 동남권 소매업 경기지수는 10월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고,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반면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는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폭락한 주점·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음식점도 매출이 부진하면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
<p>동북권 2.4% (1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4.5% 상승 및 숙박·음식점업 1.7% 하락하면서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2.4% 상승. 10월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서울 권역 중 가장 부진 •동북권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을 나타냈으나 연료, 종합소매,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이 부진진 면치 못하면서 10월 서울 권역 중 동북권 소비경기지수가 가장 부진.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종합소매도 하락
<p>서남권 4.8% (10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8.0% 상승 및 숙박·음식점업은 2.0% 하락하면서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4.8% 상승 •서남권은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음식료품, 종합소매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소매업 경기지수는 상승세를 유지.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을 제외한 세부 업종 대부분이 부진하면서 전월 상승했던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
<p>서북권 2.5% (9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7.1% 상승 및 숙박·음식점업은 4.4% 하락하면서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2.5% 상승 •서북권은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음식료품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만 (전년동월대비) 매출 상승. 또한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도 숙박은 전년동월수준, 음식점, 주점·커피전문점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서울 권역 중에서도 부진한 수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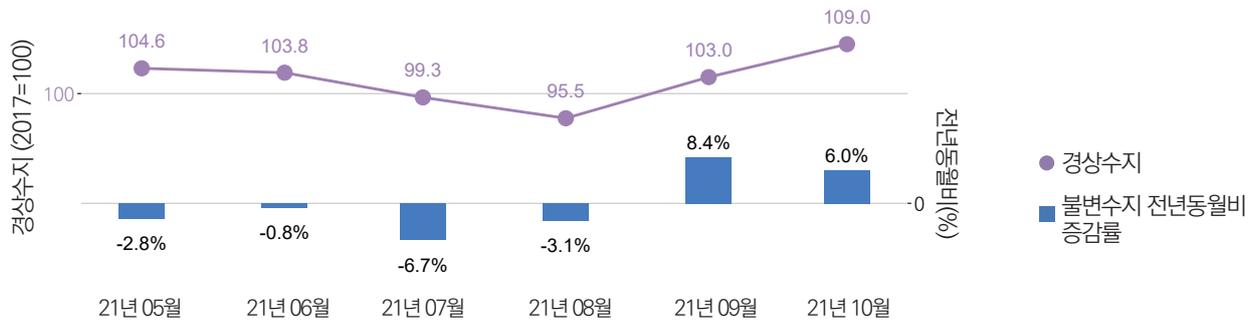
• 10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상승. 전월보다 오름폭 다소 감소

- 전년동월대비 +6.0% = 소매업의 기여도 +5.3%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0.7%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10월 서울 소비경기지수의 상승은 주로 무점포소매와 종합소매 등 소매업 활성화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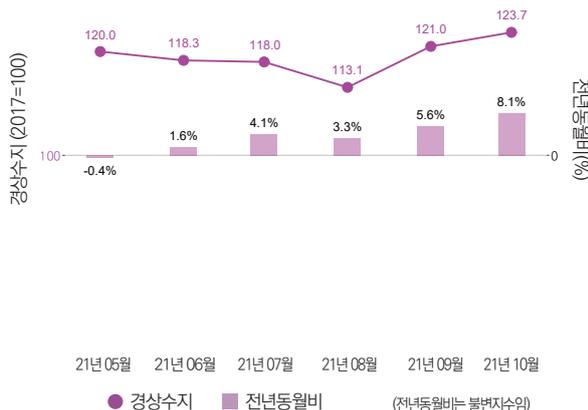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8.1%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2.0% 상승

- 기타가정용품(9월, -3.6% ⇨ 10월, 14.0%), 종합소매(9월, -3.6% ⇨ 10월, 6.4%) 등의 세부 업종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대부분 업종의 오름폭도 증가하면서 10월 서울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확대(단, 연료와 가전제품·정보통신의 부진은 지속)
- 10월 서울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음식료품, 기타가정용품, 종합소매, 의복·섬유·신발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
-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중 숙박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음식점(9월, 3.2% ⇨ 10월, -2.5%)과 주점·커피전문점(9월, 49.0% ⇨ 10월, -6.8%)은 다시 하락으로 내려가면서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 오름폭이 (전월보다) 큰 폭(-13.6%p)으로 감소
- 10월 서울 숙박·음식점업은 숙박만 소비증가. 반면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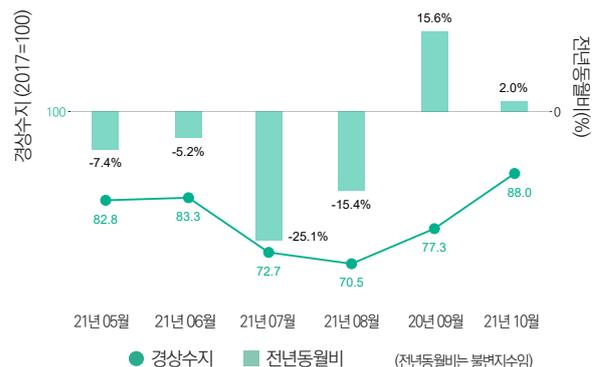
| 서울 소비경기지수



|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서울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도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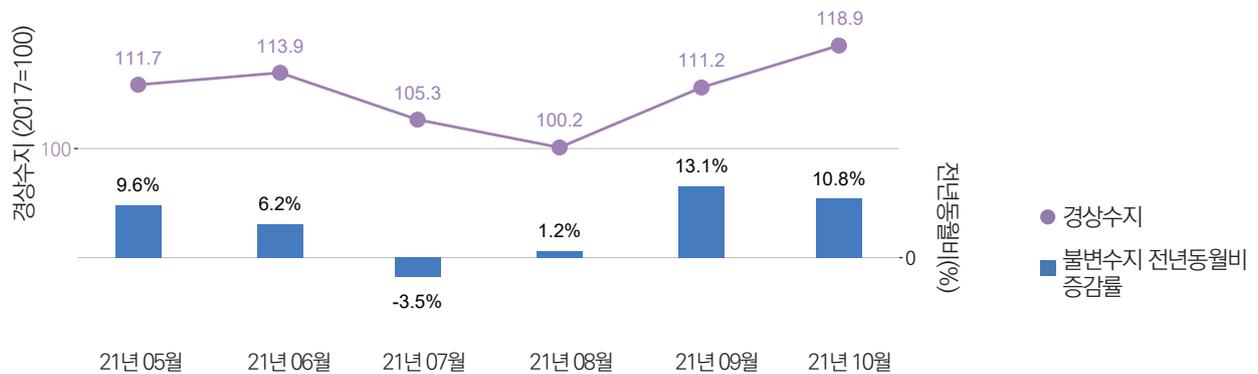
•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8% 상승. 도심권 소비경기는 9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 전년동월대비 +10.8% = 소매업의 기여도 +5.0%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5.8%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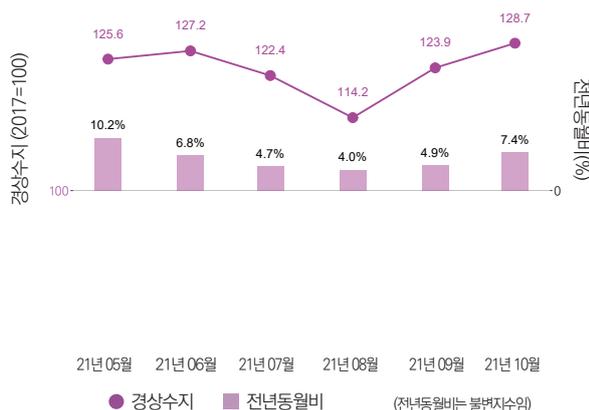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7.4%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18.0% 상승

- 도심권은 기타가정용품(41.2%), 가전제품·정보통신(24.9%), 음식료품(14.1%), 종합소매(6.4%)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도심권 소매업 경기지수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
 - 10월 도심권 소매업은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음식료품, 기타상품, 종합소매, 문화·오락·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만 소비부진
-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69.3%), 주점·커피전문점(7.7%), 음식점(3.3%) 등 세부 업종 모두 상승하면서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 10월 도심권은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가 상승
 - 10월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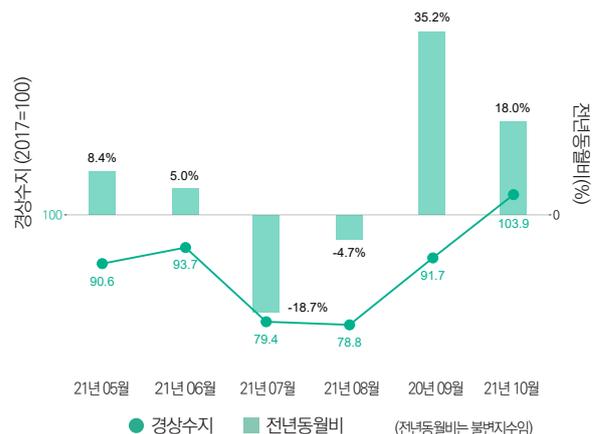
I 도심권 소비경기지수



I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I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동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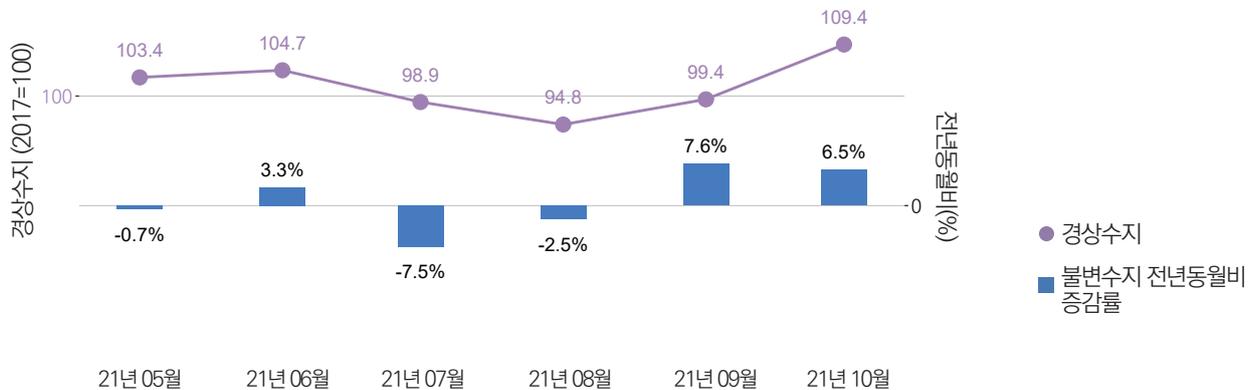
•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5% 상승. 소매업은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 전년동월대비 +6.5% = 소매업의 기여도 +7.4%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0.9%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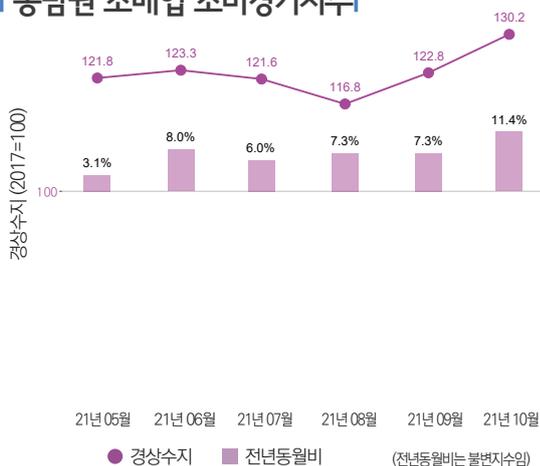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11.4%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2.6% 하락

- 동남권 소매업은 기타상품(20.9%), 무점포소매(16.9%), 의복·섬유·신발(12.4%), 음식료품(10.5%), 종합소매(8.9%), 가전제품정보통신(6.1%) 등의 세부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매출이 증가. 동남권 소매업 경기지수는 10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서울 권역 중 소매업 경기지수가 가장 양호
 - 10월 동남권 소매업은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의복·섬유·신발, 음식료품,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반면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매출이 폭락한 주점·커피전문점(-34.9%)을 중심으로 음식점(-3.9%) 등도 매출이 부진하면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9월, 8.1% ⇨ 10월, -2.6%)
 - 10월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만 소비증가. 반면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세부 업종 순으로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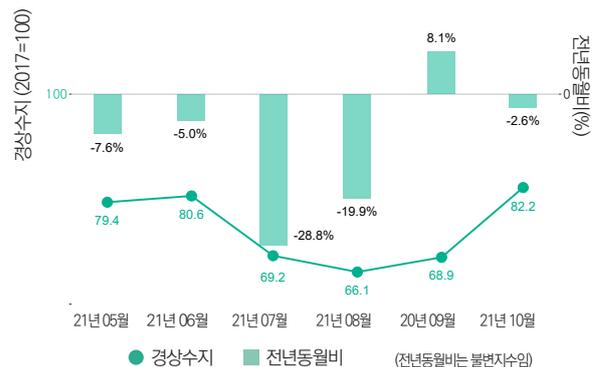
동남권 소비경기지수



동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10월 동북권 소비경기는 서울 권역 중 가장 부진

- 전년동월대비 +2.4% = 소매업의 기여도 +3.0%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0.6%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4.5%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1.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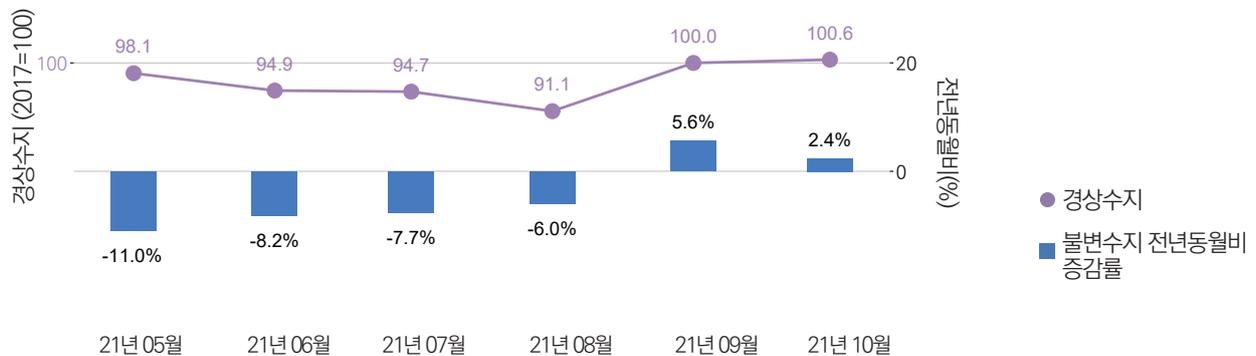
- 동북권은 무점포소매(14.7%), 음식료품(12.3%), 기타상품(11.8%), 기타가정용품(3.6%), 문화·오락·여가(2.8%), 가전제품·정보통신(0.3%) 등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 반면 연료(-32.5%), 의복·섬유·신발(-1.0%), 종합소매(-0.5%)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함. 특히 종합소매는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하락

- 10월 동북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음식료품, 기타상품, 기타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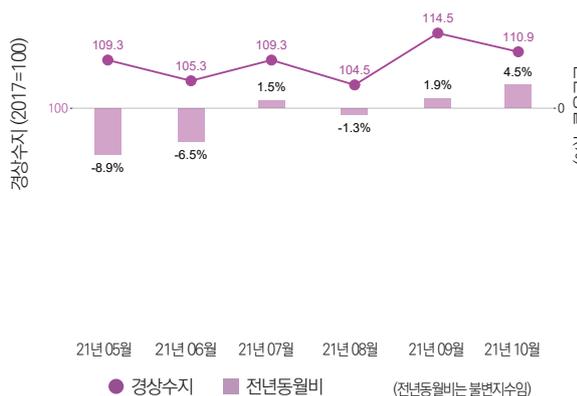
- 동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8.2%), 주점·커피전문점(2.1%) 등의 세부 업종은 (전년동월대비) 매출 상승을 나타냈으나 음식점(-3.4%) 매출이 감소를 나타내면서 동북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9월, 15.1% ⇨ 10월, -1.7%)

- 10월 동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등의 세부 업종 순으로 소비증가. 반면 음식점은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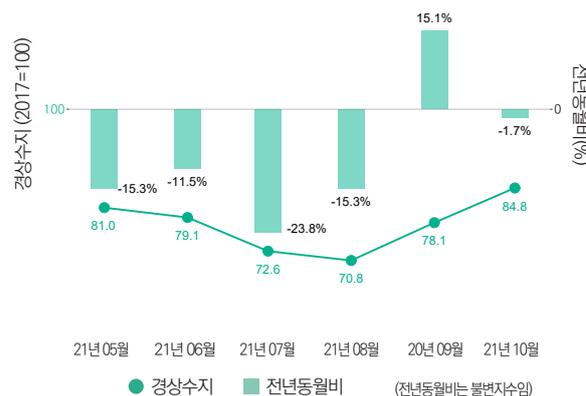
동북권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서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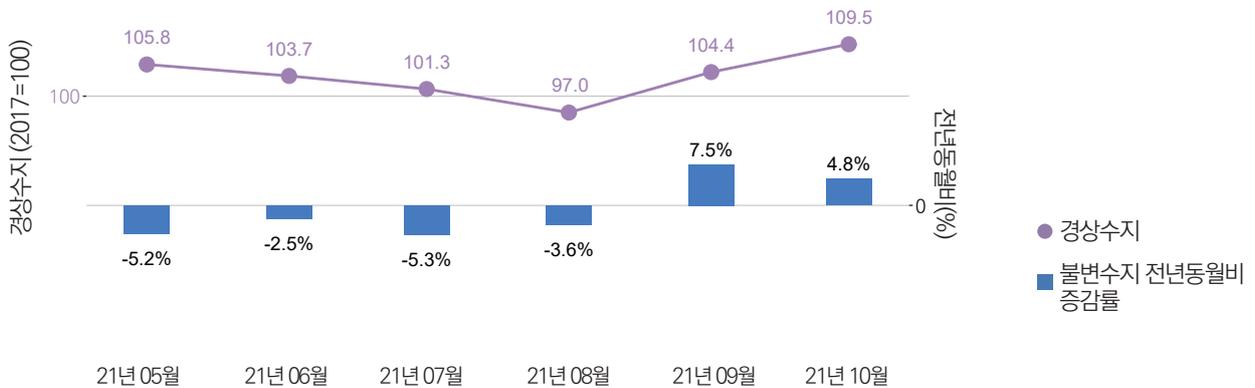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

- 전년동월대비 +4.8% = 소매업의 기여도 +5.5%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0.6%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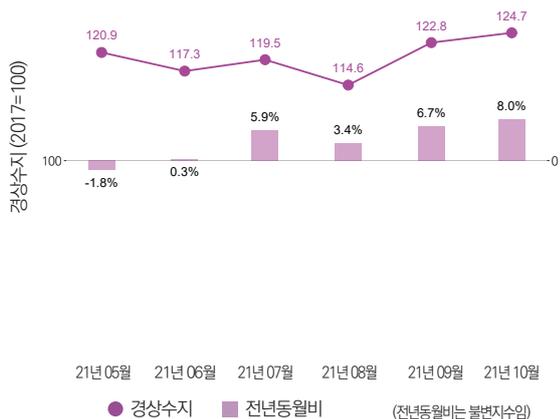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8.0%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2.0% 하락

- 서남권은 무점포소매(17.9%), 음식료품(10.9%), 기타상품(10.1%), 종합소매(9.6%)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서남권 소매업 경기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에 기여
 - 10월 서남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음식료품, 기타상품,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반면 서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19.9%)만 (전년동월대비) 매출 증가. 반면 주점·커피전문점(9월, 58.3% ⇨ 10월, -11.1%), 음식점(9월, 1.5% ⇨ 10월, -2.4%) 등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세부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면서 전월 상승했던 서남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도 10월 들어 다시 하락으로 전환(9월, 9.4% ⇨ 10월, -2.0%)
 - 10월 서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만 소비증가. 반면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세부 업종 순으로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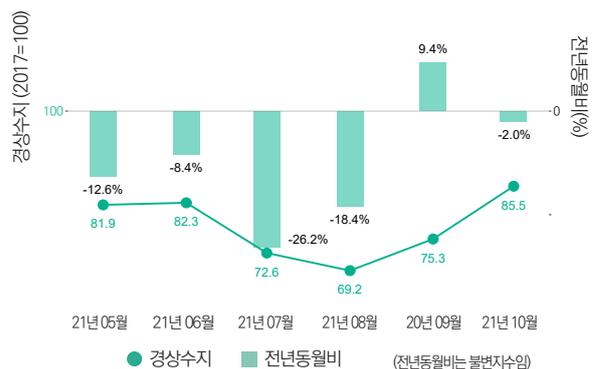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



| 서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서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서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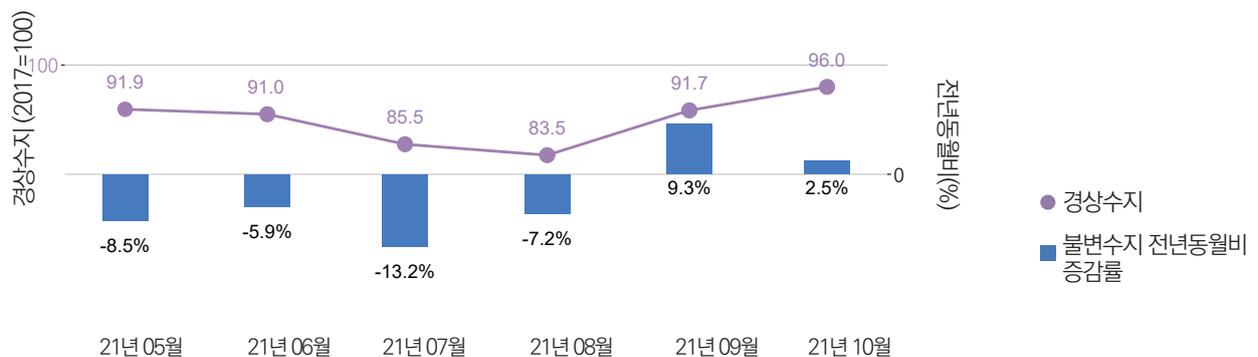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서울 권역 중 10월 숙박·음식점업 가장 부진

- 전년동월대비 +2.5% = 소매업의 기여도 +4.3%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8%p
(각 업종별 기여도 =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지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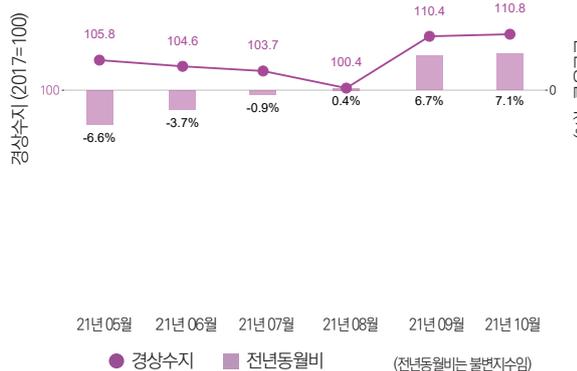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7.1%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4.4% 하락

- 서북권은 무점포소매(18.4%), 기타상품(13.0%), 음식료품(9.6%), 가정제품·정보통신(2.0%), 의복·섬유·신발(0.3%) 등 소매업 세부 업종 일부만 (전년동월대비) 매출이 상승. 서북권 소매업 경기지수는 전월 수준의 오름폭을 유지(9월, 6.8% ⇨ 10월, 7.1%)
 - 10월 서북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문화·오락·여가, 기타가정용품 순으로 소비부진
- 서북권은 숙박(1.6%)은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 음식점(9월, 3.9% ⇨ 10월, -5.5%), 주점·커피전문점(9월, 64.0% ⇨ 10월, -2.4%)은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서북권의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는 서울 권역 중에서도 부진한 수준
 - 10월 서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만 소비증가. 반면 음식점, 주점·커피전문점 등의 세부 업종 순으로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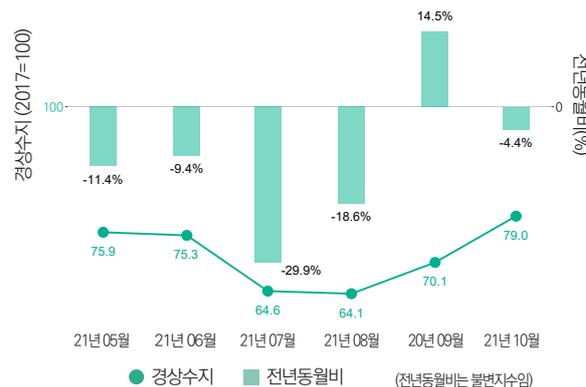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



|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서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통계표

년도	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서울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2021년	05월	104.6	99.8	111.7	107.8	103.4	98.6	98.1	93.0	105.8	100.8	91.9	87.6
	06월	103.8	99.1	113.9	110.0	104.7	100.0	94.9	89.8	103.7	98.6	91.0	86.8
	07월	99.3	94.2	105.3	101.0	98.9	93.6	94.7	89.2	101.3	95.8	85.5	81.4
	08월	95.5	89.9	100.2	95.0	94.8	89.0	91.1	85.2	97.0	91.1	83.5	78.9
	09월(p)	103.0	96.9	112.2	106.0	99.4	93.5	100.0	93.1	104.4	97.9	91.7	86.3
	10월(p)	109.0	102.4	118.9	113.0	109.4	102.5	100.6	94.0	109.5	102.6	96.0	90.4

p : 잠정치

기여도

[단위 : %p]

구분	서울소비경기지수 (21.10월)	소매업 (21.10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숙박 및 음식점업 (21.10월)		
			종합소매	음식료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의류·신발	기타 가정용품	문화·오락	연료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숙박	음식점	주점·커피전문	
서울	6.0	5.3	1.2	0.3	0.0	0.4	0.1	0.0	▽0.4	1.1	2.6	0.7	1.7	▽0.6	▽0.4
도심권	10.8	5.0	1.8	0.2	1.1	0.1	0.6	0.1	▽0.1	0.7	0.5	5.8	4.7	0.7	0.4
동남권	6.5	7.4	1.5	0.3	0.1	1.3	▽0.1	0.0	▽0.4	1.5	3.3	▽0.9	1.5	▽1.0	▽1.4
동북권	2.4	3.0	▽0.1	0.6	0.0	▽0.1	0.1	0.1	▽0.5	1.1	1.8	▽0.6	0.2	▽0.9	0.1
서남권	4.8	5.5	1.6	0.4	▽0.5	▽0.1	0.0	0.0	▽0.5	0.7	3.7	▽0.6	0.5	▽0.6	▽0.6
서북권	2.5	4.3	0.0	0.4	0.1	0.0	0.0	0.0	▽0.3	1.7	2.5	▽1.8	0.0	▽1.6	▽0.2

주 기여도는 하위구성요소의 변동이 종합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지역별 하위구성요소의 기여도 합은 지역별 종합지수의 전년동월 증감율과 동일합니다. 주의, 기여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므로 하위구성요소의 합이 종합지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및 지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카드매출 빅데이터	
분류코드	분류명	가맹점 업종분류	
서울소비경기지수	G. 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종합소매점 등
		47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정육점, 청과물, 농수산물, 농가공산품 등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가전용품,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등
		474 의복 및 섬유, 신발 소매업	남·여·기성복, 신발, 가방, 직물 등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가구, 인테리어, 악기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운동 및 레저용품, 서적 및 문구, 완구 등
		477 연료 소매업	주유소, LPG가스, 가정용연료 등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약국, 화장품, 안경, 약세사리 등
		479 무점포 소매업	CATV상품판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자동판매기, 방문판매 등
I. 숙박 및 음식점업	551 숙박시설운영업	호텔, 콘도, 모텔, 여관 등	
	561 음식점업	일반대중음식, 제과점, 패스트푸드 등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커피전문점, 주점 등	

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카드 가맹점 업종사례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 개요

• 서울소비경기지수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소비중심업종에 대하여 전체 또는 개별생산활동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한 지수

• 데이터 :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

• 공간적 범위 : 서울 및 5대 권역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 지수의 산식 : 라스피레스(기준시점 고정기중평균)산식

• 서울 및 각 권역의 가중치

산업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 해당 지역 산업별 기초가격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 각 권역의 지수는 해당 지역의 산업 가중치 합이 1로 산정된 독립적인 지수로 각 권역 증감률의 합이 서울전체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음 $\sum w_i = 1$, w_i 는 산업별 가중치를 의미 (기초가격 부가가치는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인건비 + 영업이익 + 감가·대손상각비 + 세금과공과임)

• 지수종류 : 경상지수 및 불변지수

- 경상지수 : 월별 매출액을 기준년도 매출액(2017년 평균)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불변지수 : 경상지수 ÷ 디플레이터 × 100 (디플레이터는 업종별 생산자물가지수 활용)

• 기여도

종합지수증감률 = \sum 기여도 $_i$, 기여도 $_i = (\Delta$ 하위지수 $_i / \Delta$ 종합지수) × 종합지수증감률, i 는 각 산업을 의미
하위지수(산업 각 부문)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

유의사항

-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이하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 소비지수이다.
-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소비는 서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약 30%로 소비경기의 핵심 요소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의 장점은 매월 1억건의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서울 세부지역의 소비경기까지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벤치마킹하여 생산 측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 되었으나, 분석대상인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비밀착업종임을 고려하여 지수의 명칭을 소비경기지수로 명명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와는 지수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와 데이터 출처에 따른 표본이 서로 달라 두 지수의 방향 또는 증감율이 상이할 수 있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개인 및 법인이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소비를 서울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집계한 것으로, 서울시민의 카드소비 뿐 아니라 서울외 지역 국민들이 서울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소비를 포함한다. 단, 무점포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소비(지출)로만 집계 하였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서울 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전체 매출의 약 16%로 추정된다. 카드사의 점유율 및 카드사 용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매출액 대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으며, 카드 가맹점의 업종 변화 및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경상 및 불변지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작성 및 분석되며, 설명절, 연휴 등의 월간 이동과 영업일수 변동, 그 외 불규칙 요인에 의한 효과가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해석 및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조정·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